

2 뉴스

수강신청 고충 겪는 디지털콘텐츠학과

홍지민 기자 jimin4249@khu.ac.kr

디지털콘텐츠학과(디콘) 전공과목 수강신청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수강을 원하는 인원 대비 정원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디콘 수업은 전공 필수 과목 없이 전공 선택 수업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문제가 제기된 전공 수업들은 2~30명 인원의 분반 2개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복수 전공생과 타과생의 수를 포함하면 2021년 기준 233명에 달해 수강 정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디콘에 재학 중인 A씨는 “졸업 학점을 위한 전공 수업의 정원이 한

학년의 인원만큼도 열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적어도 한 학년 전체가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수업 정원이 마련되거나 분반을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디콘에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소융)가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이 존재해 수강신청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소융의 게임트랙을 이수하려면 디콘의 전공과목인 ‘스토리텔링’과 ‘게임학’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 그 외에도 ▲3D모델링 ▲인터랙션디자인 ▲사운드디자인 ▲3D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스 등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의 모든 학생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장우린 디콘 교수는 “수강신청에서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고충을 이해한다”며 학과 내부적으로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장 교수는 “희망과목 담기 기준 160명에 육박한 과목의 경우 이전에는 볼 수 없던 현상”이라며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는 디콘의 특성상 타과 학생들이 지나치게 몰린 것과 휴학했던 학생들이 한꺼번에 복학을 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수강 정원 제한에 대해 “희망과목 담기 기준 50명 이상의 수업에 대해 수강 인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않으면 과목별로 디콘 학생이 50% 미만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이번 학기만 4개의 강좌에 한해 수강 정원을 20명으로 제한하고, 이후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 최소 40명의 인원을 선별해 디지털콘텐츠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아트앤

테크놀로지융합학과, 다전공생들을 적절히 배분하도록 담당교수께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분반 가능성이나 정원 확대 여부에 대해 장 교수는 “학칙 상 희망과목 담기에서 50명을 넘는 강좌에 한해 분반이 가능하다”며 “분반은 보통 학과 측에서 제한하나 학생들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그 이상을 분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과목 분반의 경우 본부와 단과대학의 기준이 있으며 동시에 타 학과와의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현재 한정된 예산으로 전임교수 인력, 공간, 장비 등이 무한정 풍요로울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장 교수는 타 학과에서 디콘 강의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디콘에서는 전공필수 과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타 융

합전공에서 전공필수과목으로 지정돼 있는 과목을 시정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융합, 복수전공, 편입학, 유학 등의 트렌디한 교육적 크로스오버에도 절제와 신중을 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대학에서의 학문은 분과와 전문가라는 개념이 기본적인 골격이고 이 본연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학제간연계가 이루어져야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후 학과 측에서 일부 학생들을 추가로 등록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들은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A 씨는 “소수만 강제입력에 성공했을 뿐더러 어쩔 수 없이 학점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아무 수업이나 신청한 학생들도 많다”며 “이것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인지 의문이 든다”고 심정을 밝혔다.

대학영어 장애학생 배려필요

최예령 기자 herry2020@khu.ac.kr

천민주 기자 cheonminju03@khu.ac.kr

필수교양 교과 대학영어의 레벨테스트 및 면제기준이 청각 장애인 학생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국제캠퍼스(국제캠) 자유게시판에는 대학영어 레벨테스트 응시와 관련해 의문을 제기한 글이 게시됐다. 자신이 ‘청각 장애인 학생’임을 밝힌 A씨는 “독해나 문법 시험의 경우 응시가 가능하지만, 청해 시험은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양 캠퍼스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영어 레벨테스트’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영어실력에 맞는 수준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레벨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레벨테스트의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A씨는 “해당 대학영어 수업의 교수님께 문의를 드렸으나, ‘청해를 포함해 시험을 치른 후 제출하라’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 칼리지

(사진=대학주보DB)

해당수업의 수강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장애인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영어수준을 파악하여 수업을 수강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리스닝을 포함해 시험을 치게 되면 그것이 과연 실력에 맞는 올바른 점수인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국제캠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해당 사례를 인지한 후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학기의 경우, 장애인 학생의 사정에 의해서 레벨테스트를 응시하지 못했음을 해당 교수님께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 칼리

지 또한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고려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생과 담당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레벨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장애인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안내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학영어 면제 기준에서도 장애인 학생을 위한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학영어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850점 이상 토익 성적이 있으면 이수가 면제된다. 그러나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학생의 대학영어

면제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청각 장애인 1급일 경우 청해 점수를 제외해도 된다’는 토익시험 주최 측의 권고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별도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의문을 제기한 학생 A씨는 “장애인 학생들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독해성적을 200%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어 실력을 파악하는 등의 방법이 도입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학생도 본인의 실력에 맞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학교가 빠르게 대처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1면 ‘우리 학교 방역 계획 순서대로 신중하게’에서 이어짐

지난 2월, 교육부는 코로나19로 대면 수업 출석이 불가한 학생을 위해 수업자료 제공 및 대체 출석 인정 방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결석자에게 수업 콘텐츠와 보충 자료 등을 배부하고, 과제 대체 등의 방법으로 출석을 인정할 계획이다.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교강사가 격리, 무증상, 경증일 경우 해당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중증일 경우 휴강 후 보강하거나, 대체 교강사가 수업 진행, 과제 대체 또는 직전 학기 수업자료로 대체된다.

우리 학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업무 연속성 계획(재난 발생 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교내 재학생의 10% 이상이 확진되면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비상 대응계획을 발동할 계획이다. 향후 방역지침의 개정이 있으면 출입문 통제 및 비대면 수업으로의 재전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대면 수업 비율은 전체 대비 12%이다.

학생들의 대면 자치활동 활성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지원센터 관계자는 축제 개최 여부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실과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개최하는 시기의 확진자 수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는 폐쇄적이었는데 조금씩 개방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총동아리연합회와 함께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